

# 기시다, 장기 집권 기반 마련...아베파와 선긋기?

### 일본 참의원 선거 자민당 압승 큰 선거 없는 '황금의 3년' 열려 평화헌법 개헌 논의 착수 가능성

10일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승리하면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장기 집권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작년 10월 중의원 선거에 이어 참의원 선거까지 승리를 견인한 기시다 총리에게는 앞으로 3년간 대형 선거가 없는 '황금의 3년'이 열린다.

자민당 내 온건파로 분류되는 기시다 총리가 이번 승리를 발판으로 본격적으로 자신의 정치색을 드러낼지 주목된다.

현지 공영방송 NHK는 개표 상황과 출구 조사, 판세 취재 등을 근거로 정당별 확보 의석을 중간 집계한 결과, 이날 밤 12시 현재 이번 새로 뽑는 125석 가운데 여당이 73석(자민당 61석, 연립여당인 공명당 12석)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아직 임기가 3년 남아 있어 이번에 선거 대상이 아닌 여당 의석(70석, 자민당 56석, 공명당 14석)을 합하면 이미 143석을 확보해 참의원 전체

五	関口昌一	福井	山崎正昭	兵庫	末松
菓	猪口邦子	山梨	井学	奈良	佐藤
	臼井正一	長野	山三四六	和歌山	鹤保
京	朝日健太郎	岐阜	渡辺猛之	鳥取	青木
	生稻晃子		山洋平	岡山	小野
宛川	三原じゅん子		佐知子	徳島	宮沢
	浅尾慶一郎		隆史	高知	江島
瀬	小林一大				中西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가 치러진 10일 여당 자민당 총재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당선자 이름 옆에 붉은색 장미를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의석의 과반(125석 이상)을 달성했다. 또 이미 기존 여당 의석수(139석, 자민당 111석, 공명당 28석)보다 4석을 늘린 상황이다. 아직 16석이 남은 가운데 개표가 진행될수록 의석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이 압승을 거둬 따라 임기 9개월을 지난 기시다 총리의 당내 입지가 탄탄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기시다 총리가 중의원(하원) 의원 임기(4년) 중 중의원을 해산하지 않는다면 2025년 7월 참의원 선거 때까지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도

없다.

다만, 2024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선 차기 총리 자리를 노리는 당내 경쟁자들의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은 있다.

일본 정치 최대 파벌의 수장인 아베 전 총리가 사망함에 따라 기시다 총리가 권력 기반을 강화하는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우선 아베파에는 '절대적 리더'로 군림해온 아베의 뒤를 이을 후계자가 마땅치 않다. 구심력을 발휘할 후계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새로운 체제가 구축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구미우리신문은 아베파가 아베 전 총리를 중심으로 결속해왔는데 현재 마땅한 후계자가 없는 상황이라며 "최대 파벌이 불안해지면 당내 역학 관계도 크게 변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러한 당내 역학 구도 변화는 기시다 총리에게는 세력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런 점에서 기시다 총리가 참의원 선거 이후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각료와 당직 인사를 단행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 다양한 선결 요건이 있지만 기시다의 일간 개헌 논의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연합뉴스

## 스리랑카 대통령 사임...가족통치 막 내린다

### 경제난에 반정부 시위 격화

### 위크레메싱게 총리도 사퇴

### 라자팍사 가문 통치 사실상 종료

국가 부도 속 반정부 시위대에 몰린 스리랑카의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이 9일 밤(현지시간) 전격적으로 사임 의사를 밝혔다. 사실상 2005년부터 스리랑카를 장악했던 라자팍사 가문의 '가족 통치'도 막을 내릴 전망이다. 총리도 사퇴하기로 했다.

11일 현지 언론과 외신 보도에 따르면 마힌다 야파 아베이와르데나 스리랑카 국회의장은 이날 TV 성명을 통해 라자팍사 대통령이 오는 13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아베이와르데나 의장은 대통령의 이번 결정이 평화로운 권력 이양을 보장하기 위해 이뤄졌으며 "일반 대중에게 법 존중과 평화 유지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2019년 11월 대선에서 승리한 라자팍사 대통령은 그간 스리랑카의 경제난을 불러온 책임과 관련해 야권과 국민 다수로부터 사임 압박을 받아왔다. 임기는 2024년까지였다.

라자팍사 대통령의 사임 의사 발표는 이날 반정부 시위가 격화한 가운데 각 정당 대표가 대통령과 총리의 사임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후에 나왔다. 위크레메싱게 총리도 이날 자택이 불타기 직전 내각 회의 등을 소집한 후 사임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아베이와르데나 국회의장은 이날 각 정당 대표에 의해 임시 대통령으로 추대된 상태다. 정당 지도부는 조만간 의회를 소집해 대통령 직무

대행을 공식적으로 선출하고 임시 거국 정부 구성 및 선거 일정 발표 등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라자팍사 대통령은 최근까지 형 마힌다 라자팍사 전 총리 등 라자팍사 가문 친족과 함께 스리랑카 정국을 완전히 장악했다.

하지만 그 와중에 경제난이 심화하고 정권 퇴진 요구가 거세지면서 마힌다 총리는 지난 5월 초 사임했고, 내각에 포진했던 라자팍사 가문 출신 장관 3명도 모두 사퇴한 상태다. 라자팍사 가문은

2015년 1월 마힌다는 3선에 실패, 라자팍사 가문의 독재도 막을 내리는 듯했지만 2019년 4월 '부활절 테러' 이후 치러진 대선에서 고타바야가 승리하면서 총리로 형 마힌다 전 대통령을 지목하고 여러 요직에 라자팍사 가문을 앉혔다.

하지만 스리랑카 주력 산업인 관광 부문이 붕괴하고 대외 부채가 급증한 가운데 지나친 감세 등 재정 정책 실패까지 겹치면서 최악의 경제난에 직면하면서 가문의 입지도 흔들렸다. /연합뉴스



남아공 도심 술집서 무차별 총격...최소 15명 사망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인근 소웨토의 술집 근처에 사람들이 모여있다. 경찰에 따르면 태반(술과 음식을 파는 영업장)에서 무차별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15명이 숨졌고 여러 명이 중태에 빠졌다. /연합뉴스

### 바이든 낙태 대응 고심

### 공중 보건 비상사태 등 검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연방 대법원이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폐기할 뒤 일부 주(州)가 낙태를 금지한 것에 대응해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개인 별장이 있는 델라웨어주 레호보스 비치에서 기자들과 만나 "낙태 찬성 시위대의 요구 중 하나는 공중 보건 비상사태인데 이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정부 내 의료 전문가들에게 내가 그럴 권한이 있는지와 실제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고 요청했다"고 답했다고 백악관 풀 기자단이 전했다.

미국 공중보건서비스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심각한 질병 등으로 인한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90일간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해 대응에 필요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계속 연장하고 있다.

다만 낙태와 관련한 공중 보건 비상 사태 선포를 놓고 백악관은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젠 클라인 백악관 젠더정책 자문위원회 국장은 지난 8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공중 보건 비상사태에 대한 질문에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옵션에서 완전히 제외된 것은 아니지만 좋은 선택지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 '물의 무기화' 중국 댐 건설

### 죽어가는 메콩강 생태계

중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응해 최근 메콩강 유역 5개국과 회동한 가운데 중국의 수자원 통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동남아의 젓줄'인 메콩강은 중국 티베트에서 발원해 윈난성에 이어 베트남·태국·미얀마·라오스·캄보디아를 거쳐 남중국해로 유입되는 길이 4800km의 강이다. 메콩강 상류를 중국에서는 단창(勐泐)강으로 부른다.

중국은 메콩강 상류 지역에 많은 댐을 건설해 수자원을 통제함으로써 하류 지역 국가들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2016년 미얀마·라오스·태국·캄보디아·베트남 등 메콩강 유역 5개국과 '단창강-메콩강 협력회의'(LMC)를 창설해 이들 지역 달래기에 나섰다. 메콩강 지역에서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해당 지역과 협력을 확대해 나갔다.

그러나 중국의 공격적인 댐 건설과 뒤이은 라오스와 태국의 댐 건설로 메콩강 생태계는 10여년 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1일 "라오스에서 중국까지 댐이 잇달아 건설되면서 메콩강 유역 어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전했다.

태국 마하사라킴대 환경전문가 차이나롱 세타추아 박사는 SCMP에 "메콩강 지류까지 포함하면 어획량이 이전보다 70% 이상 줄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의료 과소비!

일부의 무분별한 의료 행위는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바람직한 의료이용! 실손의료보험 수호의 시작입니다!